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치경



지난 연말부터 가슴 아픈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도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목매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학교폭력 유형도 혀를 내두르게 한다. 때리고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은 이미 고전이다. 장애를 가진 급우에게 물을 뿌리는가 하면 침을 흘린다고 대결레로 얼굴을 문지르고 욕설을 퍼부은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학교 수십 곳에 상납액을 정해주고 하청을 주는 ‘피라미드식’의 급품을 갈취해온 학교폭력 조직까지 불거졌다.

학생 간 인권교육 강화해야

피해 학생을 자살로까지 몰고 가는 학교폭력은 중대범죄다. 당하는 학생은 물론 그 부모들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듯 피해자와 가족을 파멸에 이르게하는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학교폭력 예방은 다른 학생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자각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의식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따라

학교폭력, 이래야 줄일 수 있다

서 학생들의 사고의 성숙을 유도하고, 강력한 단속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지대책을 검토해야만 비로소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다. 학교폭력은 범죄에 앞서 심각한 인권침해다. 힘이 세거나, 공부를 잘한다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기저에는 인권 무시가 깔려 있다.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대두한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제정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학생끼리의 인권 존중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제9조 2

항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추상적일 뿐이다. 또 제19조 3항에는 ‘학생은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또한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체벌금지나 복장과 두발의 자유 보장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조항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다. 마치 지금까지 학생들이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크게 인권침해를 당해왔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오인한 학생들의 반항과 탈선을 용인해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진보를 표방하는 광주시교육청이라면 ‘수직적’ 인권보장이야 당연하지만, 학생 사이의 ‘수평적’ 인권도 강조했어야 했다. 이처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학생 간의 인권존중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만들고 교육시켜 의식을 깨우쳐야 완전적인 학교폭력 예방이 가능하다. 다음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동

의대 경찰행정학부 최종술 교수는 학교전담 경찰관제 도입을 주장했다. 학교전담 경찰관제는 경찰관이 실제 활동 범위 내에 있는 몇몇 학교를 맡아 비행학생 지도와 범죄예방 교육 등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전담 경찰 고려해볼만

전담 경찰관은 자신이 맡은 학교 내 일이 진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미리 포착하고 예방과 보호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전담 경찰관의 활동을 통해 교육기관, 자치단체, 검찰, 교정기관 등이 협력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강남지방경찰청은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선도를 담당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2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학교와 학부,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과 선도활동 등을 한다.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본다. 이제 학교폭력은 근원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후 약방문식 처방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추상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전담 경찰관제 도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박행순

구순을 전후한 노부부가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가사도우미와 요양보호사가 매일 오고 바로 옆 동 의 딸,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사는 아들 내외가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두 분을 보살핀다. 또 갖 결혼한 손녀들과 사위들이 온갖 애교로 두 분을 기쁘게 해드려서 할아버지는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신다. 할머니는 수년 전부터 주위 사람들을 크게 괴롭히지 않는 소위 ‘예쁜(?) 치매’를 앓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그 연세에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식탁에는 치매약, 변비약, 갈슘, 글루코사민 외에 비타민과 건강에 좋다는 각종 크고 작은 약병들이 즐비하다. 매년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약병 수가 늘어간다. 아침이 되면 할아버지는 거실 환기를 시킨 다음, 신문을 꼼꼼하게 췌겨 읽고 반세기 넘게 하던 뽕수마찰은 생략하고 실내운동으로 만족하신다. 할머니가 잠을 깨면 큰 소리로 구령을 불어가며 할머니 운동을 시켜드리고 그 사이 딸이나 가사도우미가 준비한 식탁으로 지방이를 쥘고 할머니와 함께 나오신다. 식사 후에 할아버지는 할머니 양치질을 시키고 웬만한 수발을 기꺼이 맡아하신다. 할머니는 치매 외에도 허리가 90도가 될 만큼 굽어서 지방이도 두 개를 쥘고 겨우겨우 걷고 흰머리, 여윈 얼굴에서 옛 미모나 기품은 찾아볼 수 없이도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너무도 사랑스럽다. 매일 거르지 않고 사랑 고백을 하신다. “내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천 배, 만 배는 더 사랑한다. 당신은 참 예쁘다”라며 불이며 손등에 수없이 입맞춤을 하신다. 뿐만 아니라

“여섯 자식을 배 아파 낳고 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가? 그래서 이렇게 매미 껍데기처럼 가쪽만 남았지.”라고도 하며 할아버지는 병들고 여윈 아내를 쓰다듬으며 안쓰러워하신다. 두 분은 다정하게 소파에 붙어 앉아서 TV도 보고 서로 어깨에 기대어 낮잠도 즐긴다. 건강에 좋다고 손뼉을 치면서 우리 가요뿐만 아니라 독일어로 들장미도 함께 부르신다. 치매는 최근의 기억을 잃을 뿐 예전에 알았던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기억하는 신기한 병이다. 할머니가 젊어서 외웠던 80곡의 찬송가 중 상당수는 지금도 곧잘 부르신다. ‘배움에 때가 있다’는 말은 분명한 사실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배우두라’는 말은 모든 이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

은펜칼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유순남

‘정박해 있는 배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일본 지진에서 정박해 있는 배도 반드시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인생도 항해하지 않고 안주하고 있을 때 오히려 우울증 경험이나 자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부대끼면서 살 때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욕설 나오는 휴대폰 콘텐츠 버젓이 팔아서야

최근 아이의 휴대폰을 열어보다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해도 그렇게 어떻게 휴대폰 만드는 회사, 혹은 휴대폰에 콘텐츠를 넣는 회사는 아이들이 쓰는 휴대폰에 욕설을 넣어주고 그것을 사용케 한단 말인가. 아이 휴대폰에는 놀랄게도 욕설을 대신 말 해주는 기능이 있었고 그 욕설을 선택해서 스위치를 누르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휴대폰 안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상상할 수 없는 욕설투성이었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나 동영상, 노래,

MP3 기능 등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 사용한 경을 총계 하는 거야 당연하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욕설을 집어넣어 그걸 들으라고 하더니, 도대체 그런 발상을 하는 업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는 어떻게 휴대폰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저장해서 파는 행위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것도 휴대폰의 문화라고 말할 것인가. 요즘 청소년들의 욕설은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너무나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부적절한 말’이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요즘의 욕설은 그냥 대화이며 그런 욕설을 일상 대화 속에 넣지 않으면 말이 밋밋해서 재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욕설의 폐해에 대해 무감각해져가고 있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해낸 사람들, 그걸 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대폰에 심어서 팔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걸 허가해준 정부 당국자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정부는 욕설 콘텐츠를 휴대폰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이걸 담아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즉시 규제를 주기 바란다.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시설

농협이 농민 등쳐 ‘성과금 잔치’ 하다니

대검찰청이 저축은행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전국 단위농협에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대부분 피해자가 우리 사회의 최빈곤층인 농민이고, 불법 수익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불법 사실을 파악한 단위농협만 전국 50여 곳에 달한다. 감사 결과만 놓고 봐도 전국 단위농협 20곳 가운데 하나 이상은 썩어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 농협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산금리를 멋대로 올려 평균 44억 원의 이자를 임직원에게 성과금으로 나눠주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니 말문이 막힌다. 예대마진, 수수료 장사 등에 국한된 시종은 행과 비교하면 탐욕 수준을 넘어 그야말로 악질 범죄에 해당한다. 단위농협의 비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감시·감독의 시각 지대에 놓인 탓이다.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달리 감독권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수산식품부에 있어 전문적인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감사도 문제다. 중앙회측은 단위농협이 별도 법인이고, 인사권도 없어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일 뿐이다. 단위농협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중앙회일진 데, 그 근간이 썩어가는 걸 내버려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단위농협의 불법법을 차단할 수 있는 감독권의 금강원기관 등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비리농협에 대한 선과강하 통폐합에 나서야 한다. 검찰도 차제에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되,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발본색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낸 돈으로 설립한 농협이 농민을 등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지방 건설산업 이대로 고사시킬 건가

광주지역 건설사들이 최악의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공사 수주액이 ‘반토막’난데 이어 지난해에도 10% 가까이 줄어든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가 집계한 지난해 광주 건설업체 수주액은 84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2005년 대비 7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009년 1조8088억 원에서 2010년 9233억 원으로 절반(48.9%)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어 또다시 큰 폭으로 감소해 지역 건설업체가 고사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날게 하고 있다. 수주액 감소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되고, 부동산 경기 차가 침체돼 빠진 탓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올 건설경기도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공공공사 감소분 등을 감안할 때 건설사들의 올 수주액도 5% 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사실 어제로의 일이 아니다. 이미 4~5년 전부터 지역 주택시장이 얼얼되면서 위기에 직면했고, 돈줄까지 막혀 건건 건설업체가 잇달아 도산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공공부문 투자확대도 소ரி만 요란할 뿐 실재는 없다. 혁신도시 등 공공공사를 대형 건설사가 독식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중하다. 일자리 등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의 파국한 살림살이도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한계상황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 현실을 감안해 신규 공공공사를 대폭 늘리고,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폭 확대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도 건설업계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해 지역경제의 한 축인 건설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예술과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림은 특히 그렇다. 연주자의 숙련도나 예술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화가는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평가가 사실상 어렵다. 정해진 악보와 기법에 따라 진행되는 또 여러차례 그 과정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연주와는 달리, 그림은 완성된 제품만을 볼 수 있는데 다 난 게 뿐이라는 점, 그리고 저마다 취향이 달라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 때문이다. 수십억, 수백억 원짜리 연주는 없지만 수백억, 수천억 원짜리 그림이 흔한 이유, 그리고 그림의 평가 수단으로 돈이 개입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의 미술시장 분석회사인 아트프라이스가 지난해 세계미술시장에서 중국의 장다첸과 치바이스가 피카소를 제치고 경매낙찰 총액 1,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미술계 최고의 블루칩(Blue chip) 피카소가 1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지난 2007년 팝아트의 대

가 앤디 워홀에게 밀렸던 것을 제외하면 처음이다. 낙찰금액 총액으로는 장다첸이 5700억 원, 치바이스는 5100억 원이었다. 피카소는 3678억 원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세계미술시장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미국과 함께 G2로 자리 잡은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 그리고 ‘중국문화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고 가장 앞선 것’이라는 중화(中華)상상의 자부심이 작동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작가들의 화려한 비상에 비교하면 국내 작가들의 기록은 초라하기만 하다. 국내 최고 블루칩이 이우환 화백의 지난해 국내 경매 총액은 74억원, 2위 김환기 화백은 71억 원에 불과하다. 인구수는 물론 그림에 대한 수요와 자금력에서 ‘절대 열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화가들도 자신이 태어날 곳을 가려야 하는 걸까? /홍행기 정경부차장redplane@kwangju.co.kr

화가들의 천국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申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3 사 진 부 2200-697 조 사 부 2200-571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기획사업국 2200-55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